

방인갑 목사님의 선교 계획 대하여:

방인갑 목사님의 생각들에 다 동의합니다.

선교 센터와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 정말 맘에 듭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이런일이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인지 생각/기도 해보길 바랍니다. 이런 운동을 언제나 support 할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든, 다른 지체든). 그러나, 그 지역에 교수들과 sustainable 한 (지속할만한) 직원들을 모으고 집중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새로운 organization 을 시작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멀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2020 비전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비전은 ("2020 년 까지, 20 나라에 20 선교사 파송") 쉽게 말하자면 20 나라에 한(1) 선교사씩 가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또는,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돈으로/기도로?) 지원할 수 있다면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 비전이 무엇인지 먼저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어떻할까요?

또는 중/남미는 우리 비전 표어에 안 들어 가있는데 어떻게 중/남미 만 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특히 북한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써 나라의 정보를 배우며 북한을 돕는 조직들과 합하고 싶습니다. 또는 우리 그룹에 참석하는 나라들, 특히 일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고, 기독교는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리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 배워갑니다. 중/남미 밖으로 선교를, 청년부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선교하러 다른 나라를 가기전에 우리 교회가 현재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인갑 목사님이 말하셨듯이, 매년 선교를 두(2) 나라씩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먼저 우리 지역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를 먼저 잘하고 더 크게 보길 바랍니다.

3 부 예배 (청년부) 대하여:

먼저 젊은 청년들 (~18-35 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착각들이 많고 삶에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많지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본다면 나이 들은 사람들 (40+ 세)과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나이 들을 수록 안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청년들은 더 많은 세상에 (부모님, 학교, 직업) expectation 이 있습니다. 그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지치고 힘들어 하는 상태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은 그 중에 한가지 해야 할 일로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 우선순위는 보통 다른 일보다 교회가 낡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온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보다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 어떤 교회든.

청년들을 모이게 하려면 예배 우선순위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야 되고, 그 들을 이해 해주고, 생명이 복음이 어떻게 삶에 적용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18-35 세) 마음이 있는 이유는

#1. 저의 옛날 친구들, 같이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아마 90-95%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2. 청년들은 목회자(성경만 공부 한사람)들이 이끌기 힘듭니다, 특히 없는 곳에서 청년들을 모은다는 것은 목회자 자격만으로 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경험과 지혜를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3. 저도 그 나이에 속하니까, 그들 처럼 일하고, 공부도 해봤으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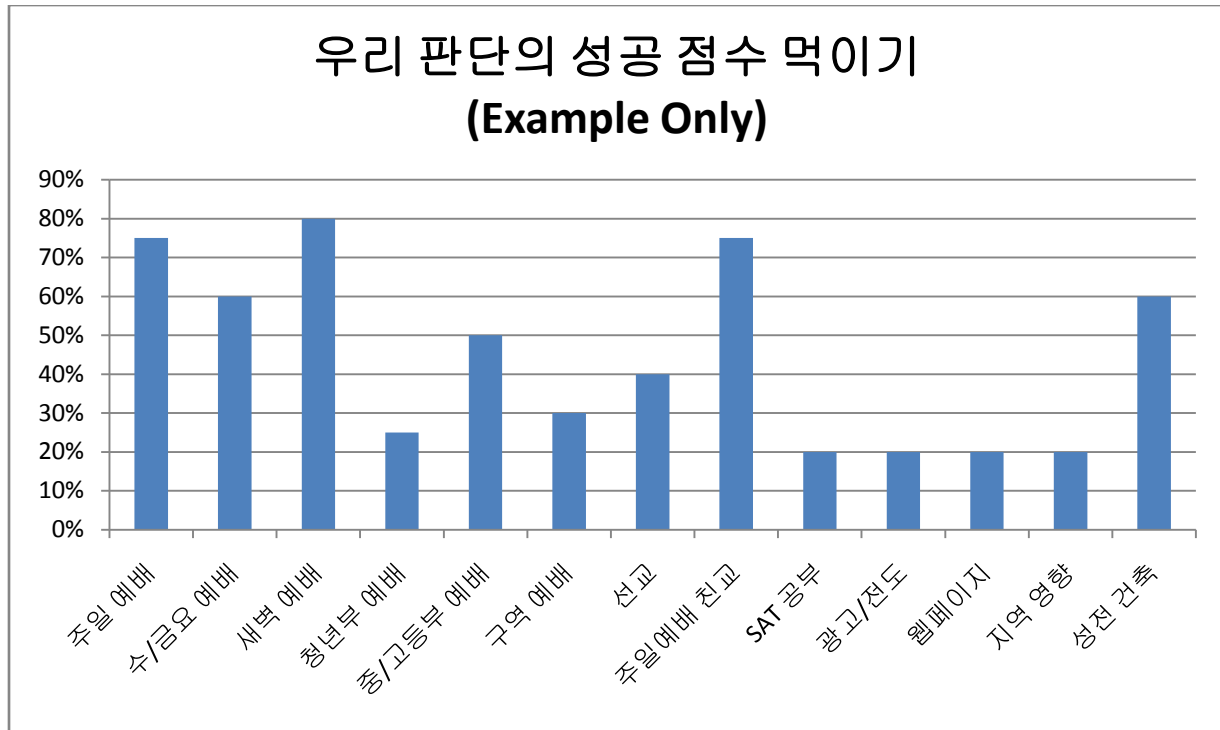
청년부 현재 상황: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 서로에게 (To One Another) 라는 이름이 지어 졌습니다.
- 예배소서를 통해 우리 비전이 확장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린 대상합니다
We seek to form a community of people that are concerned about others as a result of what Jesus has done for us. It will be a place where people will feel belonging and find personal peace and healing.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 입니다. 이 곳에선 모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함을 느끼고, 개인 적인 평화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By our words and actions, we desire people to see and feel the love of Jesus; and ultimately, encounter Him personally.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성립 되길 원합니다.
- 예배 순서가 (언제나 바꿀 수 있지만) 준비 되었습니다. (격려하는 말, 복음 전하기, 서로를 위한 기도를 매주 포함합니다)
- CCLI 노래 허가 받았고, 4 영리 한글과 영어로 인쇄하여 사용 허가를 CCC 에게 받았습니다
- 성찬식을 매달 한번식을 할 생각입니다 - 목적: 예수님이 하신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억하길 위하여)
- 주보와 웹페이지와 전도용 카드들이 준비 되었습니다. (다른 전도지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매달 이런 행사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 o 섬김 (현재: 하나 Mission 을 돕고 있습니다; 대학생 care package 를 곧 준비 할 생각입니다.) (목적: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게;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 o 나가서 먹기 (새로운 음식과 젊은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목적: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로를 축하 할 수 있도록: 생일, 성취, 등등)
 - o 나가서 놀기 (예: Bear Mountain; 나중엔 ski; 여행 등등) (목적: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모임에서 만날 수 있도록)
 - o 함께 금식: 매주 수요일 아침부터 12 시까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적: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보통하게 되는 일을 통하여 [부담되지 않는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 함께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 부족함
 - o 이젠 우리의 비전과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 됐으니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학생들을 원하면 대학교들로, 일하는 사람들을 원하면 그들이 모이는 곳으로).
 - o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중에 찬양 리더가 오기를 기도 하고 있습니다.
 - o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은 충분합니다. 부모님들의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10)명쯤이라도 모인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친히 환영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20 비전은 2020 년 까지 20 (중/남 미국)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200 구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여러가지 역할에서 먼저 한가지씩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중요할까요? 구역이면, 구역; 선교라면, 선교; 친교라면, 친교, 등등. 한가지로 시작하고, 잘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고, 서로 성공을 기념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역 교회

- 6-8 명이 권장 수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갈라 놓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 o 모든 것은 조금하게 시작하지만,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 식 잘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o 6-8 명이 꾸준히 모이고, 잘 성장하면, 그 때 나뉘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o 현재 구역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느 구역에 속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구역 별로 사진찍고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 나라 선교사 파송

- 선교를 언제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선교라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먼저 이런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지역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에 섬기는 것에 성공한 후, 다른 나라들을 생각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한가지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Car Wash (세차) + Personal Prayers (개인 기도) + Sharing of the Gospel (복음 전함)

- 몇 주 동안 광고 하고, 아침 9시부터 – 오후 5 시까지 무료로 차 닦는 것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 o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 o 우리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교회라고 인정 받습니다.
 - o Ridgefield town 에게도 섬기는 교회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o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o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 o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신문/뉴스의 우리 교회가 섬김의 교회라고 광고 될 수 도 있습니다)
 - o 성도들이 입을 옷의 메시지

